

Art & Culture

May 2025 | by Editorial

Now & New

Art & Culture

축제 같은 봄이다. 봄을 대표하는 영화 축제부터 산책과 대화, 춤을 독려하는 전시가 열리니 조금은 서둘러보자.
'봄이 차오른다, 가자!'



1 전시 〈자연국가〉 K2 1층 설치 전경,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2 최재은, '새로운 유대', 2025, Wood structure with pressed flowers on 112 urushi lacquered wood panel, framed, 212.6×238×6.9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최재은 스튜디오,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숲이 살아날 미래를 향해

1970년대 중반 이후 도교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작가 최재은의 개인전 〈자연국가〉가 국제갤러리 K2, K3에서 진행된다. K2의 1층은 작가가 평소 산책을 즐기는 교토 숲으로 탈바꿈했다. 실제 낙엽으로 만든 안료로 칠한 작품에는 숲이 내는 여러 소리가 텍스트 형태로 흐른다. K2 2층에는 텍스트, 조각,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모았는데, 전시장 안쪽의 영상 작품 'Flow'는 후지산의 200년 넘은 고목 밑동을 360도로 돌면서 촬영한 결과물이다. 하이라이트인 'DMZ 프로젝트'는 K3에 자리한다.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에 주목한 작가는 10여 년 동안 DMZ 생태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비무장지대에 나무의 '종자 불'을 드론으로 뿌리는 프로젝트를 기획한 그는 종자 불 기부 웹사이트를 제작해 관람객의 참여를 독려한다. 기부 액수보다 인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작가는 기부 약속에 동참한 사람의 에너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되리라고 전했다.

기간 5월 11일까지 장소 국제갤러리

